# 30돌 국제포교사회, 숙원 '불교대학' 설립

**12월 20일 조계사서 기념법회**
**'국제포교불교대학' 계획 발표**
**1년 2학기 운영…외국어 등 교육**
**온 · 오프 포괄 '브렌디드 러닝'**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김동수 국제포교사회 교육부장이 새로 설립되는 '국제포교불교대학'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5년 창립 30주년을 맞는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조규태)가 숙원이던 '국제포교불교대학'을 설립하고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국제포교사회는 12월 20일 서울 조계사 대설법전에서 역대 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0주년 기념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특히 이날 법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 설립 인가를 받은 '국제포교불교대학'의 운영 계획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국제 포교를 위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포교사회의 각종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한 '국제포교불교대학'의 초대 학장은 덕림 스님(중앙승가대 승가학연구원장)이, 운영위원장은 조규태 국제포교사회장이 맡는다. 운영위원으로는 조계종 포교국장 도진 스님과 조진화·오성환·김연금·김동수 국제포교사가 참여한다.

교과 과정은 예비 국제포교사를 대상으로 한 품수과정과 불교 초심자를 위한 기본과정, 국제포교사 및 일반 불자를 대상으로 한 심화과정으로 구성된다. 국제포교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인 만큼 기본과정에 기초 불교 영어·일어·중국어는 필수과목으로 들어가며 불교 개설·부처님 생애의 과목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김동수 국제포교사회 교육부장은 "'국제포교불교대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브렌디드 러닝' 교육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온라인은 종단 직영 디지털불교대학과 협업해 운영되며 오프라인은 조계사 지하 1층 선우당을 캠퍼스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온라인 강의의 70%이상은 해당 외국어로 진행하며 줌(Zoom)의 번역기능 및 AI음성 번역 기능도 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은 1년 2학기제로 운영되며 총 32주 이상의 교육 과정과 봉사 및 템플스테이 16시간, 학장 덕림 스님 연수 및 법문 4시간으로 구성된다. 수료를 위해서는 80%이상의 출석률과 평가시험 70점 이상을 받아야 가능하다.

조규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회원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숙원이었던 국제포교불교대학 설립을 이 자리에서 선포하게 됐다"면서 "이는 일반 사찰불교대학이 아니라 외국어를 기반으로 전문적이고 우수한 국제포교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국내 유일 전문 불교대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0년이 씨앗을 뿌리고 밭을 가꾸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국제포교불교대학 설립으로 우리의 원력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초대 학장인 덕림 스님은 법문을 통해 "국제포교불교대학의 설립은 한국불교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것과 같은 중요한 불사"라며 "우리가 한국불교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대들보가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제포교와 교육에 임하도록 하자"고 회원들을 격려했다.

조계종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포교국장 도진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서른 살은 입지(立志) 또는 이립(而立)이라 해서 뜻을 세우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기"라며 "국제포교사회도 30년의 역사 속에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중단 위기 나란다 축제, 원력으로 우뚝

**12월 21~22일 동국대서 제17회**
**남산 걸으며 인도순례 되새겨**


'제17회 나란다 축제'에서 진행된 상월선원 명상체험 모습.

중단 위기에 놓여 있었던 불교계 최대 청소년 신행문화축제인 나란다 축제가 '부처님 법 전합시다'의 원력으로 다시 섰다.

나란다축제 운영위원회는 12월 21~22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일원에서 '제17회 나란다 축제'를 개최했다.

나란다축제는 2009년 전국 규모 청소년 불교교리경시대회로 출발해, 2012년부터는 불교문화와 전통문화를 아우르는 신행축제로 확대·개편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공모전 형태로 전환해 꾸준히 이어졌으며, 청소년과 일반 대중이 불교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5일 주최단체였던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축제 취소를 공지했다.

그간 함께 대회를 기획·진행했던 동국대를 비롯해 상월결사, 동련, 파라미타, 교법사단, 불교음악원, 대불련, 좋은벗 등의 단체들은 대회 재개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조계사 주지이자 상월결사 이사인 담화 스님이 운영위원장을 맡아 대회 준비에 들어갔고, '나란다 축제'라는 청소년 전법의 불씨가 되살아나게 됐다.

12월 22일 진행된 나란다 축제에는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수행 정신과 전법 원력을 되새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동대부중, 동대부고, 영석고 학생 180여 명은 '남산에서 인도를 걷다' 순례체험을 통해 남산 일원을 걸으며 지난 2023년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43일간 진행된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의미를 되새겼다. 동국대 정각원에서는 상월선원 명상체험이 진행됐다. '상월결사 108원력문'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전법의 주체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 나란다 K-댄스경연대회. 전통문화 체험마당, 해봉전통예술국악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됐다. 이에 앞서 12월 21일에는 초등부를 대상으로 하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와 중고등부 '불교교리경시대회'(일부는 22일 진행)가 진행됐다.

신중일 기자 · 송정인 수습기자

# 봉은사 시왕전 준공…"흩어진 시왕도, 환지본처 발원"

**12월 20일, 점안·준공식 봉행**
**5만기 규모 위패 봉안단도 설치**



주지 원명 스님 등 스님들과 신도회 임원진들이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서울 봉은사가 흩어졌던 시왕도 4점의 환지본처를 발원하며 추진해 온 시왕전 건립불사가 원만하게 회향됐다. 시왕전은 삶을 성찰하는 수행 도량이자 24시간 염불이 이어지는 기도의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12월 20일 경내 시왕전에서 '삼존불 점안의식 및 준공식'을 거행했다.

시왕전 건립불사는 원명 스님의 '시왕도 환지본처' 발원에서 비롯됐다. 봉은사 시왕도는 과거 지장전에 봉안돼 있었으나, 1939년 화재로 판전을 제외한 전각이 소실되면서 각지로 옮겨지게 됐다. 이후 봉은사는 복원과 중창을 추진하는 한편 시왕도 소재를 추적해 왔다.

그 결과 시왕도 4점 가운데 1점(1·3대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2점(5·7·9대왕, 6·8·10대왕)은 동국대 박물관에 소장돼 있음이 확인됐다. 또 다른 1점(2·4대왕)은 2018년 미국 경매에서 낙찰받아 봉은사로 환수됐으며, 이른 시일 내에 시왕전에 봉안될 예정이다. 나머지 3점 역시 제자리를 찾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이다. 시왕도는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12월 서울시 유형유산으로 지정됐다. 이후 2022년 시왕전 건립불사가 본격화됐다. 불사 시작을 대중에 알린 뒤 단계적으로 공사가 진행됐고, 2023년부터는 모연을 통해 사부대중의 정성을 모았다. 올해 12월까지 이어진 모연에는 474세대, 500여 명이 동참했다.

시왕전은 봉은사 지장전 후면에 세워졌다. 콘크리트 구조와 한식 목구조를 결합한 전각으로, 내부에는 목삼존불(아미타불·관세음보살·대세지보살)을 봉안했다. 5만기 규모의 위패 봉안단도 마련해 상시 예경과 기도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됐다.

12월 18일에는 시왕도 4점의 영인본과 후불탱화를 봉안하고, 19일에는 삼존불 복장의식이 진행됐다.

주지 원명 스님은 시왕전을 "24시간 염불이 끊이지 않는 도량"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스님은 "봉은사 노전국 소속 환몽 스님이 독경한 〈천수경〉과 〈금강경〉, 〈아미타경〉, 영가 축원 등을 녹음해 상시로 틀어 둘 예정"이라며 "누구나 와서 마음을 놓고 예경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내영 기자

# "2026년에도 전법 포교 매진하겠습니다"


'2025 조계종 포교 · 신도단체 송년회'에 참석한 30여 단체 참석자들의 기념 촬영.

**조계종 '포교 · 신도단체 송년회'**
**최우수종무상 중앙신도회 수상**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부장 정무 스님)가 12월 23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2025 조계종 포교·신도단체 송년회'를 개최했다.

단체 30여 곳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송년회에서는 올 한 해 동안 활발한 포교전법 활동을 펼친 단체와 개인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최우수종무상은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가 수상했다.

또 교법사단과 장애인전법단, 교정교화전법단이 우수종무상을 수상했다. 한창희 포교사단 사무과장, 김정아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사무국장, 정지수 체육인전법단 사무과장은 공로상을 수상했다.

임은호 기자


